

## 대추나무 키꾸기



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

### 1. 분포 및 종류

- 갈매나무과 대추나무屬에 속하는 목본식물로 열대, 아열대, 온대지방에 약 40종이 분포함
- 교목성 과수로서 재배되며 대표적으로 중국계와 인도계 대추 등 생태형이 전혀 다른 2종이 있음
- 중국계 대추는 온대 낙엽과수로 우리나라와 중국, 일본, 러시아 등지에서, 인도계 대추는 열대 상록과수로 인도, 파키스탄 등지에서 재배됨
- 주산지는 경북 경산, 밀양, 청도, 대구, 군위, 청송과 충북 보은 지역 등임

### 2. 특성 및 용도

- 낙엽활엽 교목으로 열매는 핵과(核果), 타원형이고 표면은 적갈색으로 윤기가 있음
- 꽃은 자웅동주(雌雄同株)로 5~6월에 개화하고 과실은 9~10월에 성숙함
- 과당, 포도당, 올리고당, 아미노산, 사과산, 비타민 A·B·C 등이 있고 사포닌도 주요 성분으로 과실, 잎, 줄기, 뿌리 등에 고르게 함유되어 있음
- 대추의 탁월한 약리 성분과 효과로 그 용도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특히, 관혼상제에 필수적인 과실로 예로부터 다남(多男)을 기원하는 상징물로 폐백 등에 쓰였음
- 과실은 생식용, 한약재, 요리용, 과자, 대추차, 드링크제 및 떡 등의 용도로 쓰임
- 종자는 불면증, 다면증, 신경안정 등에 효능이 있고 목재는 수레바퀴 축, 조각품, 목기구 등의 제작에 이용됨

### 3. 재배 적지

- 해안지대를 제외한 중부 이남의 표고 500m 이하 지역이 재배적지임
- 연평균 기온 8°C 이상, 최저기온 -27°C 이상인 곳에서도 재배 가능함
- 척박지에서도 비교적 잘 자라므로 산지에 재배하기 적합한 수종임
- 토심이 깊고 배수가 잘되며 통기성이 좋은 사질양토 또는 자갈이 섞인 양토가 적지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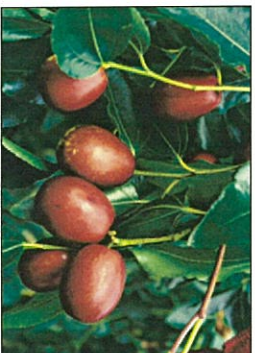


www.krri.go.kr

#### 4. 품종 특성

##### 가. 무등(無等)

- 국내 선발 품종으로 1980년에 '무등'으로 명명됨
- 수형은 개장성이고 잎이 재래종의 2배 이상으로 큼
- 6월 중순부터 개화하고 6월 하순에 만개되어 7월 중순에 개화 종료됨
- 개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로 오후 개화성 품종임
- 속기는 10월 상순이고 과형은 장원형으로 과중이 9~11g 정도의 대립종임
- 당도는 31~32%로 재래종보다 우수하고 과피색은 암적갈색으로 생과 품질이 우수함



무등 품종의 수형과 과실

##### 나. 금성(錦城)

- 국내 선발 품종으로 1980년에 '금성'으로 명명됨
- 수형은 개장성, 수세는 강한 편이나 내음성이 약해 밀식할 경우 간벌이 요구됨
- 개화기는 무등 품종보다 2일 정도 늦음
- 개화 시간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로 오후 개화성 품종임
- 속기는 10월 중순이고 과형은 타원형이며 과중이 7~8g 정도로 보통임
- 당도는 28.7%이고 과피색은 적갈색으로 건과 품질로 우수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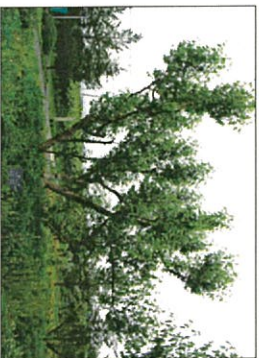
금성 품종의 수형과 과실

## 대추나무 가꾸기



### 다. 월출(月出)

- 국내 선발 품종으로 1987년도에 '월출'로 명명됨
- 수형은开张성이고 수세는 강한 편이며 전국 어느 곳이나 재배가 가능함
- 개화 기간은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, 만개기는 6월 하순이며 개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개화수와 결실량이 많은 품종임
- 속기는 10월 상순경, 과형은 장원형이며 과피는 얇고 과중은 8~9g 정도임
- 열과율(5.2%)과 부패율이 낮고, 당도는 31~32%이며 생과 및 건과 겸용이 가능함



월출 품종의 수형과 과실



### 라. 지방종(地方種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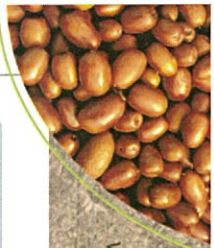
- 복조(福棗)
- 가) 경상도 지방에서 오래전부터 재배되어온 지방종으로 수형은开张성이고, 수세는 강하며 변이의 폭이 크고 균일도가 낮음
- 나) 당도 27~30%, 과중 8~10g 정도이며 과실이 불균일하고 열과되는 경향이 있음



복조 품종의 수형과 과실



- 보은(報恩)대추
  - 가) 충청도 일원에서 오래전부터 재배되어온 지방종으로 조생종임
  - 나) 당도 26~27%, 과중 5g 정도이며 핵 속에 종자(仁)가 전혀 없는 것이 특징임
- 산조(酸棗)
  - 가) 종자 발아가 용이하여 대목용으로 사용하거나 한약재로 쓰이는 품종임
  - 나) 과육은 신맛과 떫은맛이 강하여 생식용으로 부적당함



www.kfri.go.kr

## 5. 묘목 양성

종자에 의한 실생번식(實生繁殖), 뿌리에서 발생한 흡지(吸枝)의 포기나누기 형태인 분주번식(分株繁殖), 실생대목 또는 분주대목에 우량품종을 접목하는 접목번식(接木繁殖) 및 삽목법(挿木法) 등이 있으나 접목법이 가장 바람직함

### 가. 대목 양성

- 대목으로는 대추 또는 산조 종자를 파종하여 양성한 실생대목이 가장 좋음
- 가을에 완숙된 과실을 채취, 과육을 제거하고 음건시킨 후 배수가 잘 되는 음지에 노천매장 하거나 나무상자 등에 습사(濕沙) 또는 톱밥과 종자를 층을 지어 저장고에 저장하는 층적저장(層積貯藏, Stratification storage)을 하는 것이 좋음
- 저장종자는 봄에 핵피를 제거하고 종자만을 25℃가 유지되는 파종상에 파종하면 발아가 됨. 이 때 비닐하우스를 이용하면 관리가 용이하고 발아도 고르게 됨
- 발아가 시작되면 고온, 건조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본잎이 3~4매 정도가 되면 야외 포지로 옮겨 심음
- 포지는 비옥하고 배수가 잘 되는 사질양토가 좋으며, 이식 간격은 줄 사이 30~40cm, 모목 간격은 20cm가 적절함

### 나. 접수 채취시기 및 저장

- 접수는 우량품종으로 빗저무병에 걸리지 않은 나무에서 지난해에 새로 자란 1년생 1次枝만을 3월경에 정지전정과 동시에 채취·보관하거나 접목시 바로 채취함
- 미리 접수를 채취한 경우, 겉가지를 제거하고 절단면에 발코트를 발라준 후 30~40분씩 다발로 묶어 습한 모래에 기부만 묻어줌
- 접수저장은 3~5℃가 유지되는 저온 저장고가 가장 좋으나 불가능할 경우 지하실, 과실 저장고 등에 보관하고 접수의 양이 적을 때에는 비닐에 싸서 냉장고에 저장하되 마르지 않도록 주의해야함

### 다. 접목 방법 및 시기

- 접목은 대목을 양성한 장소에서 직접 접목하는 방법(거접, 据接)이 대목을 굴취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접목을 한 후 포지에 옮겨 심는 방법(양접, 揚接) 보다 효과적임